최용석의 팁인 | 세계의 벽에 막힌 한국남자농구, 다음 월드컵까지 4년의 과제

“청소년 농구부터 선진교육 도입 필요”

-대표팀 베테랑 가드 박찬희

FIBA 월드컵 1승4패로 격차 실감
높이싸움서 밀린 것도 사실이지만
1대1 돌파·외곽슛·수비서도 열세
선진 시스템 도입·국제경험도 중요



한국 남자농구대표팀은 2019 국제농구연맹 월드컵에서 25년 만에 승리를 거뒀지만 개인 기량의 한계를 여실히 깨달았다. 이는 선진적인 유소년 육성 교육 시스템에 기반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수들을 길러내야 극복 가능한 문제다.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대표팀.
인천국제공항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한국 남자농구대표팀이 중국에서 열린 2019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에서 32강 조별리그 3전 전패 등 종합전적 1승4패로 대회를 마쳤다. 순위결정전에서 코트디부아르에만 승리했다. 대표팀 베테랑 가드 박찬희(32·인천 전자랜드)는 “국제 대회를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 기량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어린시절부터 연마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며 “ 농구하는 사람 모두와 KBL에 있는 사람, 유소년을 지도하는 사람이 앞으로 청소년 농구에 선진적인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접 몸으로 부딪혀본 선수의 말이라 그 울림이 더 컸다.

이번 대회를 보면 한국이 기본적으로 높이 싸움에서 밀린 건 사실이다. 체격과 파워, 운동능력 등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었다. 월드컵 이전에 평가전을 겸해 국내에서 열렸던 4개국 초청 대회에서도 세계적인 팀과의 기술적인 차이가 적지 않았다. 화려한 농구를 뜻하는 게 아니다. 1대1 돌파, 기본적인 외곽 슈팅능력 등에서 격차를 보였다. 높이가 떨어지는 한국의 경우 외곽슛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비가 없는 상태에서의 외곽슛 성공률이 상대보다 높지 못했다.

선수들의 능력 부족을 비난하는 게 아니다. 한국농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프로리그에서도 빼어난 슈터는 손에 꼽을 정도에 그친다. 이러한 현상은 프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학이나 고교등 아마추어에서도 마찬가지다. 공격 기술뿐 아니라 수비도 마찬가지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싸워하는 기본적인 투쟁심부터 수비 전술 이행도가 아쉽다. 프로는 선발한 선수들을 곧바로 활용해야하는 무대다. 하지만 최근 프로팀들은 신인 선수를 일정 기간 육성해 활용하는 입장이다.

한국농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한농구협회의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틀린 말은 아니다. 전반적인 대표팀 운영 시스템을 손봐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어린 선수들을 육성하는 교육 시스템을 먼저 손질해야한다. 이를 통해 좋은 선수들을 길러내고, 많은 국제경기 경험을 쌓게 해야 한다. 또한 선수들도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분발해야한다.

현 대표팀 선수들은 이번 월드컵에서 세계적인 강호들과의 격차는 있지만 그렇다고 따라잡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조금씩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다음 월드컵까지 남은 4년, 그 다음 월드컵까지 8년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한국농구의 미래가 달렸다.

스포츠부 차장 gtyong@donga.com

‘선수 폭행’ 논란 최인철 감독 여자축구대표팀 사령탑 사퇴

한국 여자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선임됐던 최인철 신임 감독(47)이 자진 사퇴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9일 “최인철 감독이 KFA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선임소위원회에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KFA는 최 감독의 의사를 존중해 사퇴를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감독은 윤덕여 전 감독(58)의 후임으로 지난달 29일 여자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그러나 선임 직후 과거 지도자 생활 기간 동안 여자 선수들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결국 그는 팀을 제대로 맡기도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최 감독은 소위원회에 전달한 사과문을 통해 “이번 언론 보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대표팀 감독직을 내려놓겠다.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라고 해서 없던 일이 되거나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죄송한 마음뿐이다”고 전했다. 이어 “잘못된 언행으로 상처를 입은 선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사죄를 드리고 싶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에는 내 사과가 부족할 수 있다”며 “하지만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만큼 조금이나마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선수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KFA 김판곤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최 감독의 사퇴 및 향후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1 호남권 첫 KOVO컵 2 1순위 가빈·디우프 출전 3 이적생 시험대

순천 KOVO컵 21일 개막

남녀 각 8개팀 참가 16일간 열전
오심땐 비디오판독 기회 한번 더

9월 21일부터 10월 6까지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2019순천·MG새마을금고컵 프로배구대회(이하 순천 KOVO컵)가 열린다. 2009년 광주에서 열렸던 한일탑매치를 제외하고는 호남권에서 최초로 펼쳐지는 공식 프로배구대회다.

지난해 여자는 충남 보령, 남자는 충북 제천에서 KOVO컵이 따로 열렸지만 이번에는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남녀가 연달아 경기를 한다. 덕분에 경기기간이 16일인 대형 이벤트가 됐다. 참가팀도 남녀 모두 8개 팀으로 늘었다. 실업배구 국군체육부대(남자부)와 수원시청, 양산시청(이상 여자부)이 초청팀으로 참가한다. 여자부 A조는 KGC인삼공사 흥국생명 IBK기업은행 수원시청이, B조는 GS칼텍스 현대건설 한국도로공사 양산시청이 조별예선을 치른다. 남자부는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대한항공 OK저축은행이 A조, KB손해보험 우리카드 한국전력 국군체육부대가 B조다. 남녀 모두 조별리그 상위 2팀이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해 우승을 가린다.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아 연맹에 선수등록을 마친 외국인선수는 출전이 가능하다. 가장 관심대상은 남녀 각각 1순위로 뽑힌 가빈(한국전력)과 디우프(KGC인삼공사)다. 몇몇 외국인선수들은 이번 KOVO컵에서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하면 퇴출될 수도 있다.

많은 선수가 시즌준비 과정에서 바뀐 터라 이들이 새로운 팀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도 궁금하다. 대한항공 유광우 손현종, KB손해보험 김학민 박진우, 우리카드 하현용, GS칼텍스 한수지, IBK기업은행 표승주, 현대건설 고예림 등의 활약이 관전 포인트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해 제천대회 때 폭발물 협박전화로 한바탕 소동을 치른 터라 경기장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 재난·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경기장 출입구에 보안 검색대를 설치하고 핸디형 금속 탐색기를 추가 배치하는 등 검색 범위를 확대한다. 새로운 로컬룰도 첫 선을 보인다. 세트당 1번만 주던 기존의 비디오판독 제도를 수정해 오심 및 판독불가로 판정되면 기회를 1번 더 주기로 했다. 팬들의 볼거리를 위해 비디오판독 과정은 전광판에 공개한다. 티켓 예매는 한국배구연맹 통합 티켓예매처(vticket.co.kr)에서 한다. 현장티켓은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살 수 있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